

#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가다/오다’의 사용 양상 분석

— 간접 인용을 중심으로 —

김지영(군산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박시균(군산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 목 차 〉

- |                   |                              |
|-------------------|------------------------------|
| 1. 서론             | 3.2. 이동주체가 청자일 경우            |
| 2. 연구 방법          | 3.3. 이동주체가 제3자일 경우           |
| 2.1. 설문 문항 구성     | 3.4. 이동주체가 화자와 청자일 경우        |
| 2.2. 피험자          | 3.5. 간접인용에서의 ‘가다/오다’의 기준점 설정 |
| 3. 조사 분석 및 결과     | 4. 논의 및 결론                   |
| 3.1. 이동주체가 화자일 경우 |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간접인용에서의 이동동사 ‘가다/오다’의 교육 연구에 기초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어 모어 화자가 간접인용에서 이동동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가다/오다’의 사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이동동사 ‘가다/오다’의 사용에서 한국어는 이동주체가 ‘청자’이고 목적지가 ‘화자’일 때와 명령문과 의문문일 때 중국어와 간접인용에서의 이동동사의 기준점 설정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경우 한국어 모어 화자는 ‘원 화자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하고, 중국어 모어 화자는 ‘전달자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삼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간접인용에서

\* 주저자: 김지영, 교신저자: 박시균

의 이동동사를 교육할 때 교육 내용 및 평가 방법 등을 개발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간접인용, 이동동사, 명령문, 의문문, 중국어권 학습자

## 1. 서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 보거나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인용(quotation) 표현을 사용한다. 한국어의 인용 표현은 인용 형식을 기준으로 하여 화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직접인용(Direct quotation)’과 원래의 화자가 말한 것을 화자의 입장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간접인용(Indirect quotation)’이 있다. 담화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받고,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출현하기 때문에 간접인용은 한국어 교육과정에 있어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필수 문법 항목이다).

동사 ‘가다/오다’는 한 장소에서 다른 한 장소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어서 직시 동사로<sup>2)</sup> 분류된다. 발화자는 이러한 이동동사를 사용할 때 상황맥락(context of situation)을<sup>3)</sup> 고려하여 적절한 어휘를 선택

1) 간접인용 문법 항목은 대부분 한국어 중급(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교재 등)에서 다루고 있다.

2) Levinson(1983)에서 직시(deixis)란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것(pointing) 또는 지시하는 것(indicating)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deixis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담화 행위와 관련된 발화맥락(context of utterance)의 여러 자질을 기호화하여 발화체 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범주라고 하였다. 직시 체계에는 지시사(demonstrative), 인칭대명사, 시제(tense), 특정한 시간 부사(now, then), 장소 부사(here, there)와 발화 상황에 직접 관련된 다양한 문법 자질 등이 있다(정희자, 2008에서 재인용).

3) 담화상황맥락 요소들에는 이동주체, (이동의) 목적지, 발화시, 사건시, 화자, 청자,

하고, 청자는 그 상황맥락 속에서 발화자의 언어를 이해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이동동사의 사용은 언어에 따라 기준점을 다르게 설정하기 때문에 사용 양상이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이동동사의 사용은 양 언어의 ‘기준점’이 달라서 그 사용 양상이 다르며 이러한 양상으로 인하여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가다/오다’를 사용할 때 오류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sup>4)</sup>.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의 간접인용 표현<sup>5)</sup> 이동동사 ‘가다/오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간접인용 안에서의 이동동사의 쓰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대한 선행 연구에는 고석주(2007)와 이연옥(2010) 등이 있다.

고석주(2007)에서는 간접인용에서 ‘가다’가 ‘오다’로 바뀌는 현상이 있지만 언제나 이런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1)). ‘가다’가 ‘오다’로 바뀐 것에 대해 이동 사건의 도달점이 직접인용에서는 청자이지만 간접인용에서는 이동 사건을 인지한 인용문의 화자이기 때문에, 직접인용에서의 ‘가다’가 간접인용에서는 기준점(이동 사건의 인지자의 위치)으로 이동하므로 ‘오다’가 쓰였다고 했다. 또한 명령문을 간접인용으로 바꿀 때 이동사건의 기준점을 이동사건을 인지한 사람으로 설명하였다(2), (3)). 즉, ‘일찍 가는’ 사건과 ‘일찍 오는’ 사건을 인지하는 사람이 인용된 문장의 화자인 ‘선생님’이므로 선생님이 이동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원 화자의 발화인 ‘가다’와 ‘오다’가 바뀌지 않았다고 하였다.

- (1) a. 철수가 어제 “영이가 내일 이것을 자네한테 가지고 가겠군”이라고 말했다.  
b. 철수가 어제 영이가 오늘 그것을 나한테 가지고 \*가겠다/오겠다고 말했다.

---

화자와 이동 목적지와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 등이 있다.

- 4) 최인혜, 2009; 이연옥, 2010; 이남, 2012; 염철, 2015; 임몽남, 2017 등이 있다. 간접인용을 다룬 연구로는 채숙희(2013), 고경태(2014), 이정란(2017) 등이 있다.  
5) 김순일, 2010; 이운정, 2011; 서아경, 2012; 이해, 2014; 염맹, 2017 등이 있다.

- (2) a. 어제 선생님께서 “너 집에 일찍 가거라/갔었구나”라고 말씀하셨어.  
 b. (집에서) 어제 선생님께서 나에게 집에 일찍 가라/\*오라/갔었다/\*왔었다고 말씀하셨어.
- (3) a. 어제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내일은 학교에 일찍 오겠군”이라고 말씀하셨어.  
 b. 어제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오늘은 학교에 일찍 \*가겠다/오겠다고 말씀하셨어.

이연옥(2010)은 제3자가 화자나 청자 그리고 3자를 제3자의 위치로 이동하도록 한 명령을 화자가 전달할 때에 한국어는 원래 화자인 제3자가 명령 표현에서 사용한 ‘가다/오다’를 전달자의 관점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화자의 사견시 위치와 제3자의 위치에서의 이동 표현만을 연구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직시 동사가 포함된 간접인용문은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쓰인다. 간접인용에서 ‘말을 전달하는 화자’는 그 말을 한 ‘원래의 화자’가 자신의 관점에 입각하여 표현한 이동동사 ‘가다/오다’를 ‘새로운 청자’에게 전달할 때 ‘전달자’의 관점으로 바꾸어 전달해야 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3) a. 지금 통역이 필요한데 와 줄 수 있어요?  
 b. 빨리 농구장으로 가 봐.

a를 간접인용으로 바꾸면 한국어로는 ‘지금 통역이 필요한데 와 줄 수 있냐고 해요.’이고, 중국어로는 ‘他說現在需要翻譯, 問我能不能過去’이다. b는 한국어로는 ‘빨리 농구장으로 가 보래.’이고, 중국어로는 ‘他讓你趕快去籃球場’이다. 양 언어를 살펴보면 상황맥락에 따라 일정한 기준점을 설정한 후에 그에 맞추어 이동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p>6)</sup>. 따라서 한국어와

6) (3)번의 a. b.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3장에서 하기로 한다.

중국어의 간접인용에서 이동동사 ‘가다(去)/오다(來)’를 어떠한 양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언어 현상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접인용 안에서의 한국어 모어 화자의 ‘가다/오다’의 사용 양상과 중국어 모어 화자의 ‘去/來’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가다/오다’의 사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사용상의 오류를 찾아내어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간접인용 문법 교육 연구에 기초적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 2.1. 설문 문항 구성

이동동사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Fillmore(1975)는 발화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여러 상황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come’과 ‘go’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하였고, 이러한 직시적 의미를 지닌 ‘come’과 ‘go’를 직시 동사로 분류하였다. Fillmore는 ‘발화시(coding time)’와 ‘참조시(reference time)’의 개념을 이용하여 이동사건에 대해 표현할 때에 시간과 목적지가 변수로 설정이 되며, 이에 따라서 ‘come’과 ‘go’의 사용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Fillmore는 ‘come’은 발화시 및 참조시에서 화자나 청자 위치로의 이동을 나타내며, 참조시에 화자나 청자의 본거지로 향한 이동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go’는 발화시에 화자 이외의 위치로의 이동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발화시(coding time)’는 발화를 한 순간부터 실제로 이동이 일어나기까지가 현재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화자가 말을 한 시간을 의미한다. ‘참조시(reference time)’는 ‘사건시’라고도 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이동이 현재를 제외한 과거 혹은 미래의 사건임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목적지(destination)는 현재 화자나 청자가 있는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문장에서는 ‘여기’, ‘거기’ 등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화자가 ‘내가 지금 학교로 갈

게'라고 발화했다면 이 문장에서의 이동시간은 발화시이며 목적지는 청자가 있는 곳이다.

Nakazawa(1990)는 Fillmore의 분석을 기본으로 일본어 '行く'와 '來る'와 영어의 'come'과 'go', 한국어 '가다'와 '오다'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동주체라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하였다. Nakazawa(1990)는 이동주체(agent)를 화자, 청자, 제3자로 나누고, 이동주체가 화자인 경우 목적지를 화자, 청자, 제3의 장소로 나누고, 청자와 제3자인 경우에는 목적지를 화자(발화시), 청자(참조시), 청자, 제3의 장소로 나누었다.

송창섭(2003)은 Fillmore의 가설에 입각하여 직시 동사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았는데 간접인용에서 화자와 청자가 직시상황을 공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1) 원래의 청자가, 원래의 화자가 직시한 공간 속에 위치하고 있지만 새로운 청자가 이 공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 2) 새로운 청자는 원래의 화자가 직시한 공간 속에 있지만 원래의 청자가 이 공간을 벗어나 있는 경우, 3) 원래의 청자와 새로운 청자가 모두 이 공간을 벗어나 있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인용에서의 이동동사 '가다(去)/오다(來)'의 사용 양상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Fillmore의 가설을 토대로 하여 한국어, 영어, 일본어에 적용 가능한 기준점을 확장하여 제시한 Nakazawa(1990)의 기준점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어의 간접인용은 문장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형태의 종결어미로 실현된다. 중국어 문장은 한국어와 동일하게 네 가지 문장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평서문(敍述句), 의문문(疑問句), 명령문(祈使句), 청유문(共動句)이다<sup>7)8)</sup>. 따라서 문장 종류에 따라 간접인용에서의 '가다'와 '오다'가 어떠한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주체는 '화자, 청자, 제3자, 화자와 청자'로 나누고, 각 이동주체에 따른 목적지는 다시 '화자, 청자, 제3의 장소'로 달리하였다. 또한

7) 이 외에도 감탄문(感歎句)이 있다.

8) <표 1> 한·중 간접인용의 문장 유형(순루이평, 2018)

문장 형식을 고려하여 설문 문항 17개를 구성하였다.

## 2.2. 피험자

설문조사 대상은 한국 K대학교 학생인 한국어 모어 화자 60명과 중국 산둥 소재 대학교 학생인 중국어 모어 화자 80명, K대학교 어학원, 학부와 대학원에 진학 중인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 72명으로 총 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두 언어에 나타난 간접인용에서의 ‘가다(去)/오다(來)’의 사용 양상을 비교·분석해보고,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도<sup>9)</sup>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상의 오류를 살펴보았다<sup>10)</sup>.

## 3. 조사 분석 및 결과

### 3.1. 이동주체가 화자일 경우<sup>11)</sup>

#### 3.1.1. 화자의 위치로 이동

문장유형	한국어	중국어
평서문	-다고 하다	說
의문문	-(으)냐고 하다	說, 問
명령문	-(으)라고 하다	命令, 請, 讓, 勸
청유문	-자고 하다	一起, 讓, 一塊, 動員

9) 한국어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중급 1에서 간접인용을 학습하게 되므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는 중급 이상의 학습자를 설문대상으로 삼았다.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기간은 평균 51개월이다.

10) 중국 사이트 [https://www.wjx.cn/\(問卷星\)](https://www.wjx.cn/(問卷星))에서 설문지를 작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한국어 설문지를, 중국어 모어 화자에게는 중국어 설문지를 제공하였다.

11) NK(Native Korean), LK(Learner's Korean), NC(Native Chinese)

<표 2>은 이동주체와 목적지가 화자인 경우의 ‘가다/오다’의 선택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NK의 경우에는 ‘가다’(3%)와 ‘오다’(97%)의 사용 분포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NC도 ‘來’(65%)를 많이 선택하였으나 ‘去’를 선택한 비율도 35%로 나타났다<sup>12)</sup>. LK는 ‘오다’(83%)를 선택한 비율이 ‘가다’(1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동주체와 목적지가 화자인 경우, ‘원 화자’인 철수가 발화한 시점에 ‘청자’인 영희도 동일한 공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자이자 전달자’인 영희가 전화 중에도 직시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즉 청자인 영희의 위치로 원 화자인 철수가 움직였기 때문에 ‘오다’가 선택되었다. 따라서 NK와 NC 모두 ‘전달자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이동주체가 화자이고, 목적지가 화자인 경우

이 동 주 체	목 적 지	문 항	선택률(%)					
			NK		LK		NC	
			가 다	오 다	가 다	오 다	去	來
화 자	화 자	1. (학교에서) 영희: 언제 왔어? 철수: 30분 전에 왔어.  (전화 중) [영희는 학교, 민희는 집에 있다.] 민희; 철수는 언제 왔대? 영희: 30분 전에 (            ).	3	97	17	83	35	65

### 3.1.2. 청자 위치로 이동

이동주체가 화자이고 목적지가 청자인 경우, ‘원 화자’는 자신이 청자에게

12) 문항 1의 대화에서 ‘철수는 언제 왔대?’의 중국어 문장은 ‘*哲秀什麼時候去的?*’이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여기에 나온 문장의 ‘去’를 보고 무의식적으로 ‘去’를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사후면담에서 중국어 모어 화자들은 ‘來’가 맞는 표현이지만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대화 상대방의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이동할 때 직시의 중심이 자신에게 있으므로 ‘가다’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원 화자’가 한 말을 간접인용으로 바꿀 때에 ‘전달자’는 자신의 관점에 입각하여 이동동사를 선택해야 한다. 2, 3번 문항에서 ‘전달자’인 자신의 위치로 ‘원 화자’가 이동하는 것이므로 ‘오다(來)’의 선택에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K와 NC 모두 ‘전달자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발화시(2번)나 참조시(3번)에도 동일한 기준점을 설정하여 이동동사를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K도 NC와 마찬가지로 ‘오다’를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이동주체가 화자이고, 목적지가 청자인 경우

이 동 주 체	목 적 지	문항	선택률(%)					
			NK		LK		NC	
			가 다	오 다	가 다	오 다	去	來
화 자	청 자	2. (전화 중) [철수는 집, 영희는 병원에 있다.] 철수: 영희야, 좀 어때? 많이 아파? 내가 지금 너한테 갈게. 영희: 그래, 알았어.	0	100	11	89	6	94
		(병원에서) [민희와 영희는 병원에 있다.] 민희: 철수가 뭐래? 영희: 지금 여기로 ( ).						
		3. (학교에서) 철수: 내가 영희 씨 고향에 가면 마중 나올 거예요? 영희: 그럼요.	0	100	10	90	2	98
		(학교에서) 민희: 철수 씨가 뭐래? 영희: 우리 고향에 ( )면 나보고 마중나올 거냐고 묻더라고.						

### 3.1.3. 제3의 장소로 이동

다음은 이동주체가 화자이고 목적지가 제3의 장소일 때의 ‘가다/오다’의 사용 양상이다. 4번 문항에서 NK와 NC의 ‘전달자’는 ‘전달자의 위치에 기준점’을 두고 ‘원 화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멀어지므로 모두 ‘가다(去)’ 100%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LK도 이와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

<표 4> 이동주체가 화자이고, 목적지가 제3의 장소인 경우

이 동 주 체	목 적 지	문항	선택률(%)					
			NK		LK		NC	
			가 다	오 다	가 다	오 다	去	來
화 자	제 3 의 장 소	4. (교실에서) 영희: 오늘은 같이 못 갈 것 같아. 나 수업 끝나고 세탁소에 가야 하거든. 민희: 알았어, 그럼 나 먼저 갈게.  (길에서) 철수: 어? 영희야? 오늘은 너 혼자 집에 가니? 민희: 응, 영희는 세탁소에 ( )해서 오늘은 나 혼자 가.	100	0	92	8	100	0

## 3.2. 이동주체가 청자일 경우

### 3.2.1. 화자의 위치로 이동

다음은 이동주체가 청자이고 목적지가 화자일 때의 ‘가다/오다’의 사용 양상이다. 5번 문항을 보면 NK는 100% ‘오다’를 선택하여 ‘원 화자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NC는 98%가 ‘去’를 선택하여 ‘전달자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K는 ‘가다/오다’를 각각 50% 선택하여 모어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6번 문항은 제3자의 위치로 이동하라는 화자의 명령을 전달받고 이동하는 상황으로 NK는 ‘오다’를 100% 선택하였지만 NC는 ‘去’를 99%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NK는 ‘원 화자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삼고, NC는 ‘전달자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LK는 ‘가다’ 63%, ‘오다’ 37%를 선택하였다.

7번과 8번 문항에서 NK는 ‘원 화자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하기 때문에 직시 장소의 공유 여부와 무관하게 95%가 ‘오다’를 선택하였지만, NC는 ‘전달자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하기 때문에 직시 장소의 공유 여부에 따라 ‘원 화자’와 ‘전달자’가 동일 장소에 있다고 인식하면(7번) ‘來’(93%)를 선택하고, 동일 장소에 있다고 인식하지 않으면(8번) ‘去’(95%)를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동주체가 청자이고 목적지가 화자인 경우에 NK와 NC의 기준점 설정이 달라서 LK는 모어의 부정적 간섭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자가 중국어와 동일한 기준으로 이동동사를 선택하여 말한다면 어색한 문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기준점이 다르다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표 5> 이동주체가 청자이고, 목적지가 화자인 경우

이 동 주 체	목 적 지	문항	선택률(%)					
			NK		LK		NC	
			가 다	오 다	가 다	오 다	去	來
청 자	화 자	(전화 중) [철수는 사무실, 민희는 기숙사에 있다.] 5. 철수: 영희 씨, 지금 통역이 필요한데 와 줄 수 있어요? 영희: 네, 지금 갈게요.  (기숙사에서)	0	100	50	50	98	2

영희: 민희야, 미안한데 우리 저녁은 다음에 먹자. 철수 씨가 지금 통역이 필요하다고 ( ) 줄 수 있냐고 해서 가 봐야 하거든.						
6. (전화 중) [민희는 농구장, 영희는 교실에 있다.] 민희: 영희야, 지금 농구할 거니까 빨리 농구장으로 와. 영희: 응, 바로 갈게.  (교실에서) 철수: 영희야, 도서관 가자. 영희: 미안해. 나 지금 민희가 농구장으로 ( ) 해서 가 봐야 하거든.	0	100	63	37	99	1
7. (교실에서) 철수: 영희야, 어제 왜 학교 안 왔어? 무슨 일 있었어? 영희: 아니, 좀 피곤해서 못 갔어.  (전화 중) [영희는 교실에 있고, 민희는 집에 있다.] 민희: 철수 만났어? 철수가 뭐래? 영희: 어제 왜 학교 안 ( ) 무슨 일 있냐고 묻더라.	5	95	41	59	7	93
8. (교실에서) 철수: 영희야, 어제 왜 학교 안 왔어? 무슨 일 있었어? 영희: 아니, 좀 피곤해서 못 갔어.  (전화 중) [영희는 집에 있고, 민희는 커피숍에 있다.] 민희: 철수 만났어? 철수가 뭐래? 영희: 어제 왜 학교 안 ( ), 무슨 일 있냐고 묻더라.	5	95	62	38	95	5

### 3.2.2. 청자 위치로 이동

이동주체와 목적지가 청자일 때의 ‘가다/오다’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NK와 NC 모두 ‘전달자’가 ‘전달자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LK는 ‘가다’ 67%, ‘오다’ 33%를 선택하였다.

<표 6> 이동주체가 청자이고, 목적지가 청자인 경우

이 동 주 체	목 적 지	문항	선택률(%)					
			NK		LK		NC	
			가 다	오 다	가 다	오 다	去	來
청 자	청 자	9. (도서관에서) 철수: 영화야, 네 가게 언제 갈 거야? 영화: 30분 후에 가려고.  (도서관에서) 민희: 철수가 뭐래? 영화: 아, 나보고 가게 언제 ( ) 묻더라고.	97	3	67	33	89	11

### 3.2.3. 제3의 장소로 이동

다음은 이동주체가 청자이고 목적지가 제3의 장소일 때의 ‘가다/오다’의 사용 양상이다. 10번 문항은 제3의 장소로 이동하라는 제3자의 명령을 전달 받고 이동하는 상황으로 NK와 NC 모두 ‘가다(去)’를 100%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10번 문항의 경우에는 NK와 NC가 ‘원 화자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하거나 ‘전달자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하여도 ‘전달자’가 제3의 장소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가다’를 선택한다. 6번 문항의 기준점을 통하여 동일한 명령문의 문장인 10번 문항의 기준점도 NK는 ‘원 화자의 위치’이고 NC는 ‘전달자의 위치’일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LK도 이와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

11번 문항을 보면 NK와 NC의 원래의 청자이자 전달자는 제3의 장소로 이동을 해야 하므로 모두 ‘가다(去)’(NK: 98%, NC: 98%)를 선택하였다. 이 경우에도 NK와 NC는 모두 ‘전달자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삼는 것을 알 수 있다. LK도 ‘가다’(88%)를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이동주체가 청자이고, 목적지가 제3의 장소인 경우

이 동 주 체	목 적 지	문항	선택률(%)					
			NK		LK		NC	
			가 다	오 다	가 다	오 다	去	來
청 자	제 3 의 장 소	10. (교실에서) 민희: 영화야, 곧 농구 경기 시작할 거래. 빨리 농구장으로 가 봐. 영희: 응, 알겠어.	10	0	93	7	10	0
		(길에서) 철수: 영화야,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니? 영희: 민희가 농구 경기 끝 시작한다고 빨리 농구장으로 ( )라고 해서 가는 길이야.						
		11. (기숙사에서) 영희: 내가 내일 오전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혹시 시간되면 나대신 세탁소에 가서 옷을 찾아다 줄 수 있어? 민희: 응, 그렇게. 영희: 고마워.	98	2	88	12	98	2
		(전화 중) 철수: 영희가 뭐래? 민희: 내일 오전에 일이 있다고 나한테 세탁소에 ( ) 옷을 찾아다 줄 수 있냐고 물어 보더라고.						

### 3.3. 이동주체가 제3자일 경우

#### 3.3.1. 화자의 위치로 이동

이동주체가 제3자이고 목적지가 화자인 경우, NK와 NC는 제3자가 전달자인 자신의 위치로 오고 있기 때문에 ‘오다(來)’(NK: 100%, NC: 95%)를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달자의 위치에 기준점’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LK의 경우에는 76%가 ‘오다(來)’를 선택하고 있지만 24%도 ‘가다(去)’를

선택하였다.

<표 8> 이동주체가 제3자이고, 목적지가 화자인 경우

이 동 주 체	목 적 지	문 항	선택률(%)					
			NK		LK		NC	
			가 다	오 다	가 다	오 다	去	來
제 3 자	화 자	12. (기숙사에서: 영희와 민희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영희: 민희야, (내가 조금 전에 친구랑 영상통화를 하다가 봤는데) 철수가 지금 우리 기숙사 쪽으로 오고 있더라. 민희: 무슨 일이지?  (기숙사에서) 지영: 영희가 뭐래? 민희: 철수가 지금 우리 기숙사 쪽으로 ( ) 있대.	0	100	24	76	5	95

### 3.3.2. 청자 위치로 이동

이동주체가 제3자이고 목적지가 청자인 경우, NK와 NC는 ‘전달자의 위치에 기준점’을 두고 ‘오다(來)’(NK: 77%, NC: 99%)를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LK는 ‘가다’ 26%, ‘오다’ 74%를 선택하여 NC가 선택하지 않은 이동동사를 선택하는 비율도 낮지 않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이동주체가 제3자이고, 목적지가 청자인 경우

이 동 주 체	목 적 지	문 항	선택률(%)					
			NK		LK		NC	
			가 다	오 다	가 다	오 다	去	來

제 3 자	청 자	13. (전화 중) 영희: 나 지금 기숙사에 있는데, 내 노트북이 갑자기 잘 안 되네. 혹시 도와줄 수 있어? 민희: 미안한데 나 컴퓨터 잘 못해. 철수한테 연락해봐. 철수가 가서 도와줄 거야. 영희: 응, 고마워.	23	77	26	74	1	99
		(기숙사에서) 지영: 민희가 뭐래? 도와 줄 수 있대? 영희: 아니, 민희도 컴퓨터 잘 못한데. 철수가 ( ) 도와줄 거라고 철수한테 연락해 보래.						

### 3.3.3. 제3의 장소로 이동

이동주체가 제3자이고 목적지가 제3의 장소인 경우, NK와 NC는 모두 ‘전달자의 위치에 기준점’을 두고 ‘가다(去)’(NK: 98%, NC: 95%)를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LK도 ‘가다’(90%)를 더 많이 선택하였다.

<표 10> 이동주체가 제3자이고, 목적지가 제3의 장소인 경우

이 동 주 체	목 적 지	문 항	선택률(%)					
			NK		LK		NC	
			가 다	오 다	가 다	오 다	去	來
제 3 의 자 장 소	제 3 의 장 소	14. (교실에서) 김 선생님: 철수는 오늘 왜 학교에 안 왔어요? 영희: 어제 중국에 갔어요.  (교무실에서) 이 선생님: 철수가 오늘 학교에 안 왔어요? 김 선생님: 네, 어제 중국에 ( ) .	98	2	90	10	95	5

### 3.4. 이동주체가 화자와 청자일 경우

화자와 청자 동반일 때에는 이동주체에 항상 화자와 청자가 포함된다. 화자와 청자가 동반할 때 제3의 장소로 이동을 하는 때와, 제3의 장소로의 이동시 직시장소를 공유하고 있는지와 그렇지 않은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5번 문항을 보면 철수와 영희가 함께 제3의 장소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NK와 NC는 모두 ‘가다(去)’를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16번 문항은 철수와 영희가 현재 대화를 하고 있는 장소로 미래의 언제인가 이동을 해야 한다. 두 사람이 이동해야 할 장소는 현재 대화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 장소이므로 ‘오다’를 선택하였다. 17번 문항은 철수와 영희가 이동해야 할 장소에서 벗어나 대화를 하는 상황으로 두 사람이 그 장소로 이동해야 하므로 ‘가다’를 선택하였다.

이동주체가 화자와 청자 동반일 때, 목적지가 제3의 장소이거나 직시장소를 공유한 장소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NK와 NC는 모두 ‘전달자의 위치에 기준점’을 두고 이동동사를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이동주체가 화자와 청자이고, 목적지가 제3의 장소, 발화시, 참조시의 경우

이동주체	목적지	문항	선택률(%)					
			NK		LK		NC	
			가다	오다	가다	오다	去	來
화자와 청	제3의 장소	15. (전화 중) 철수: 우리 이번 주말에 에버랜드 가자. 영희: 좋아.  (기숙사에서) 민희: 철수가 뭐래? 영희: 이번 주말에 에버랜드 ( ) 하네.	100	0	92	8	98	2

자	참조시(직시장소공유)	<p>16. (식당에서)          철수: 여기 음식 진짜 맛있다.          다음에 또 오자.          영화: 그래.          민희: 영화야, 좀 시끄러워서 방금 철수가 한 말을 못 들었는데 뭐라고 했니?          영화: 철수가 여기 음식 맛있다고 다음에 또 ( ) 했어.</p>	3	97	11	89	11	89
	참조시(직시장소비공유)	<p>17. (1주일 전, 한국식당에서)          철수: 여기 음식 진짜 맛있다.          다음에 또 오자.          영화: 그러자!          (1주일 후, 학교에서)          민희: 학교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있으면 좀 알려줘.          영화: 학교 앞 한국식당 한번 가 봐.          지난번에 철수랑 같이 가서 먹었는데 철수도 그 식당 맛있다고 또 ( ) 하더라.</p>	83	17	89	11	94	6

### 3.5. 간접인용에서의 ‘가다/오다’의 기준점 설정

간접인용에서의 ‘가다/오다’의 기준점을 이동주체와 목적지에 따라 설정해 보면 <표 12>과 같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이동주체가 ‘청자’이고 목적지가 ‘화자’일 때와 명령문일 때 기준점 설정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이동주체와 목적지에 따른 기준점 설정

문 항	이동 주체	목적지	기준점		
			NK	NC	
1	화자	화자	전달자		
2		청자(발화시)	전달자		
3		청자(참조시)	전달자		
4		제3의 장소	전달자		
5	청자	화자(의문문)	원 화자	전달자	
6		화자(명령문)	원 화자	전달자	
7		화자 (의문문: 직시장소 공유)	원 화자	전달자	
8		화자 (의문문: 직시장소 비공유)	원 화자	전달자	
9		청자	전달자		
10		제3의 장소(명령문)	원 화자	전달자	
11		제3의 장소	전달자		
12		제 3 자	화자	전달자	
13			청자	전달자	
14			제3의 장소	전달자	
15	화자 와 청자	제3의 장소	전달자		
16		화자와 청자 (참조시: 직시장소 공유)	전달자		
17		제3의 장소 (참조시: 직시장소 비공유)	전달자		

#### 4. 논의 및 결론

3장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어는 이동주체가 ‘청자’이고 목적지가 ‘화자’일 때, 문장 종류는 의문문과 명령문일 때 간접인용에서의 ‘가다’와 ‘오

다'의 기준점 설정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는 명령문과 의문문에서 원 화자의 발화를 간접인용으로 바꿀 때 원 화자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하기 때문에 목적지나 직시 장소의 공유 여부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와 달리 중국어는 전달자의 관점에 입각하여 간접인용으로 바꾸기 때문에 목적지와 직시 장소의 공유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한국어에서 명령문과 의문문에서 기준점 설정이 달라지는 원인에 대해 고석주(2007)에서는 이동 사건의 기준점이 '이동 사건을 인지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고석주(2007)에서 언급한 '이동 사건을 인지한 사람'을 이동 사건의 기준점으로 삼아서 3장 설문조사의 NK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 기준점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6번 문항에서<sup>13)</sup> '빨리 농구장으로 와'라는 이동 사건을 인지한 사람이 원 화자인 '민희'이므로 간접인용에서도 이동 사건을 '빨리'라고 인지하는 사람인 '민희'가 이동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오다'를 사용한 것이다. 또한 '영희'가 원 화자의 말을 간접인용으로 바꾼 후 자신의 발화(가 봐야 해)를 할 때에는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 다른 위치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가다'를 사용한 것이다. 고석주(2007)의 기준점으로 본다면 '가 봐야 해'를 인지하는 사람이 '영희'이므로 '가다'가 사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간접인용을 설명할 때 '이동 사건을 인지한 사람'을 기준점으로 삼으라고 지도한다면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중국어에서는 '이동 사건을 인지한 사람'이 기준점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간접인용은 원 화자의 말을 제3자에게 전달할 때 전달자의 관점에 맞게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3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점을 '원 화자의 위치'로 삼는지, '전달자의 위치'로 삼는지에 초점을 두고 지도하는 것이 중국인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간접인용에서의 이동동사의 기준점을 '원 화자의 위치'와 '전달자의 위치'로 설정하여 결과를 정리하면

13) 민희: 영희야, 지금 농구할 거니까 빨리 농구장으로 와.

영희: [지금 민희가 농구장으로 빨리 오라고 해서] 가 봐야 해.

다음과 같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명령문에서 ‘원 화자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동주체와 목적지에 상관없이 ‘원 화자’가 명령 표현에서 사용한 이동동사 ‘가다/오다’를 ‘전달자’인 화자가 자신의 관점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전달한다. 그러나 중국어 모어 화자들은 ‘전달자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하기 때문에 ‘원 화자’가 명령 표현에서 사용한 ‘가다/오다’를 ‘전달자’인 화자의 관점으로 바꾸어 사용하여 전달한다.

<표 13> 명령문에서의 이동주체와 목적지에 따른 ‘가다/오다’의 사용 양상

문장종류	문항	이동주체	목적지	NK	NC
명령문	6번	청자	화자	오다→오다	오다→가다
	10번		제3의 장소	가다→가다	가다→가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명령문을 제3자에게 전달할 때, 한 문장 안에서 이동의 기준점이 둘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6번 문항의 “나 [지금 민희가 농구장으로 오라고 해서] 가 봐야 하거든.” 에서 전달자 인용 문장은 ‘원 화자의 위치를 기준점’(오라고)으로 하고, 자신의 발화는 ‘전달자인 자신의 위치를 기준점’(가 봐야)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 문장에서는 “我現在要去籃球場。[敏熙叫我去籃球場。]” ‘전달자의 위치’만을 기준점으로 설정한다.

<표 3>을 보면 의문문에서 이동주체가 화자이고 목적지가 청자일 때,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어 모어 화자는 모두 ‘오다(來)’를 선택했다. 이를 통해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어 모어 화자는 ‘전달자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동주체가 청자이고 목적지가 화자일 때에는 발화시, 참조시, 직시공간의 공유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어 모어 화자는 ‘원 화자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원 화자’가 사용한 ‘가다/오다’를 ‘전달자’인 화자의 관점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반면에 중국어 모어 화자는 ‘전달자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전달자’인

화자의 관점에 입각하여 ‘가다/오다’를 바꾸어 사용한다. 이 때문에 목적지와 직시공간의 공유 여부 등에 따라 ‘가다/오다’의 사용 양상도 달라진다.

<표 14> 의문문에서의 이동주체와 목적지에 따른 ‘가다/오다’의 사용 양상

문장종류	문항	이동주체	목적지	직시공간	NK	NC
의문문	5번	청자	화자	비공유 (발화시)	오다→오다	오다→가다
	7번			공유 (참조시)	오다→오다	오다→오다
	8번			비공유 (참조시)	오다→오다	오다→가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의문문 또한 제3자에게 전달할 때 이동의 기준점이 두 개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5번 문항의 “[철수 씨가 지금 통역이 필요하다고 와 줄 수 있냐고 해서] 가 봐야 하거든.”의 간접인용 표현을 보면 명령문과 마찬가지로 전달자가 인용 문장은 ‘원 화자의 위치를 기준점’(와)으로 하고, 자신의 발화는 ‘전달자인 자신의 위치를 기준점’(가)으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 모어 화자들은 “[哲秀說現在需要翻譯, 問我能不能去?] 所以我要現在過去。” 전달자’인 자신의 위치만을 기준점으로 설정한다.

3장의 설문문항에서 LK의 이동동사 선택률을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기준점 설정이 다른 5~8번 문항에서 LK는 NC가 선택한 이동동사를 훨씬 더 많이 선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실제 선택 비율을 보면 NK가 선택한 이동동사도 적지 않은 수가 선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LK가 한국에서의 학습이나 거주기간의 증가로 L1의 영향에서 벗어나 L2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와 중국어의 기준점 설정이 동일한 9, 12, 13번 등의 문항에서는 NK와 NC가 선택하지 않은 이동동사를 선택하는 비율도 낮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간접인용에서의 이동동사 사용에 대한 학습이 교재나 교실에서 이루어 지지는 않았으나 한국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동동사의 사용이 모어와 다르다

는 점을 발견하고 학습자 나름대로 이동동사 사용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하여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발달상의 오류로 판단된다<sup>14)</sup>.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중국어권 학습자들에게 간접인용을 지도할 때에는 한국어의 명령문에서는 ‘원 화자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설정하므로 ‘원 화자’가 사용한 이동동사를 ‘전달자’의 관점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전달한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 의문문에서는 이동주체를 먼저 확인하여 이동주체가 ‘청자’이고 목적지가 ‘화자’인 경우에는 ‘원 화자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설정할 것을 지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명령문과 의문문의 경우에는 한 문장 안에서 이동의 기준점이 두 개가 적용되므로 전달자는 원 화자의 발화는 ‘원 화자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하고, 자신의 발화는 ‘전달자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어 모어 화자들의 간접인용에서의 이동동사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사용 실태를 분석해 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교육 현장에서 중국어권 학습자의 간접인용에서의 ‘가다/오다’의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14) Richard(1971)는 오류의 원인으로 유형을 구분하는 내용적인 접근으로 오류의 원인에 따라 간섭 오류(interference error), 언어내적 오류(intralingual error), 발달 오류(developmental error)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간섭 오류는 모어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오류이고, 언어내적 오류는 목표어 규칙의 과잉 적용 및 규칙의 불완전한 적용 등 규칙 습득 과정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오류이고, 발달 오류는 교실에서나 교재를 통한 제한된 경험을 통해 학습자가 목표어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데서 비롯된 오류라고 정의하였다.

## 참 고 문 헌

- 고경태(2014),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간접 인용 표현의 교육 내용 검토」, 『국어국문학』 166, 국어국문학회, 141-163면.
- 고석주(2007), 「이동동사 ‘가다’와 ‘오다’의 의미」, 『한국어학』 36, 한국어학회, 73-97면.
- 교육부(2019), 「2019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2019-04-01)」, <<http://www.moe.go.kr>>.
- 김순일(2010), 「한국어 간접인용문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 연구: 중국인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청주대 석사학위논문.
- 김정관(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가다’와 ‘오다’의 화용론적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2008), 「한국어 인용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남기심·고영근(2009), 『표준국어문법론』, 개정판, 탑출판사.
- 박은성(2009), 「한일 장소 이동동사 ‘가다/오다’의 비교 연구: 일본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아경(2012), 「중국어와 한국어의 인용표현 대조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송창섭(2003), 「간접화법에 있어서의 직시 동사 ‘Come/Go’와 ‘Bring/Take」, 『현대영어영문학』 47-2,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123-143면.
- 순루이핑(2018),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간접 인용 표현의 의미·기능에 관한 교육 방안」, 세종대 석사학위논문.
- 염맹(2017), 「한국어 간접 인용 표현의 교육 방안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 염철(2015), 「한국어와 중국어 이동동사 대조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 이기동(1977), 「동사 ‘오다/가다’의 의미 분석」, 『말』 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39-159면.
- 이남(2012), 「한·중 방향성 이동동사 구성의 대조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 이연옥(2010), 「이동동사 ‘가다/오다’의 기준점 설정에 대한 가설과 사용 양상 연구: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배재대 석사학위논문.

- 이운정(2011), 「中國人學習者를 위한 韓國語間接引用表現教育方案研究」,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이정란(2017), 「한국어교육을 위한 간접 인용 구문 분석」, 『우리말연구』 51, 우리말학회, 269-291면.
- 이해(2014), 「한국어와 중국어 간접인용문의 대비연구」,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 임몽남(2017),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이동동사 교육 방안」,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 조경윤(2005), 「영어권 학습자의 이동동사 ‘가다’와 ‘오다’의 사용 양상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운철(2002), 「‘來’와 ‘去’의 공간적 기준점 문제」, 『중국언어연구』 14, 한국 중국언어학회, 131-138면.
- 정희자(2008), 『담화와 문법』, 한국문화사.
- 채숙희(2013), 「고급학습자의 일상대화에서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인용 구문 사용 양상 연구: 중국어권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교육』 23-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71-389면.
- 최인혜(2009), 「한국어 ‘가다/오다’와 중국어 ‘來/去’ 의미 비교 연구」, 수원대 석사학위논문.
- Fillmore, C. J. (1975), Santa Cruz Lectures on Deixis 1971,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Levinson, S. C. (1996), 이익환·권경원 역, 『화용론』, 한신문화사(원서발행 1983).
- Nakazawa, T.(1990), A Pragmatic Account of the Distribution of Come and Go in English, Japanese and Korean, Japanese Korean Linguistics, VIII, pp.97-110.
- Richards, J. C. (1971), A non-contrastive approach to error analysis, *English language teaching journal*, 25, pp.204-219.

【Abstract】

A Study on the Use of Korean Locomotion Verbs  
'Gada(go)/Oda(come)' in Indirect Quotation  
by Chinese Learners of Korean

Kim, Ji-young · Park, See-gyo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use of Korean locomotion verbs 'Gada/Oda' in indirect quotation of Chinese-speaking Korean learners after comparing the use of locomotion verbs in native speakers of Korean with native speakers of Chinese in order to establish the fundamental data on the education research of locomotion verbs 'Gada/Oda'. According to the survey, the establishment of a reference point in indirect quotation in Korean language is different from that in the Chinese language when the agent is the listener and the destination is the speaker, and the sentence is imperative, and the sentence is interrogative. Thus, it is affirmed that Korean native speakers regard 'the reference point as the location of original speaker' while Chinese native speakers regard 'the reference point as the speaker'. This result could be used in developing curriculum and assessments in real educational settings.

**Keyword** : indirect speech, locomotion verbs, imperative sentence, interrogative sentence, Chinese speaking Korean learners

이 논문은 2020년 10월 25일에 투고되었으며, 2020년 11월 1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20년 11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